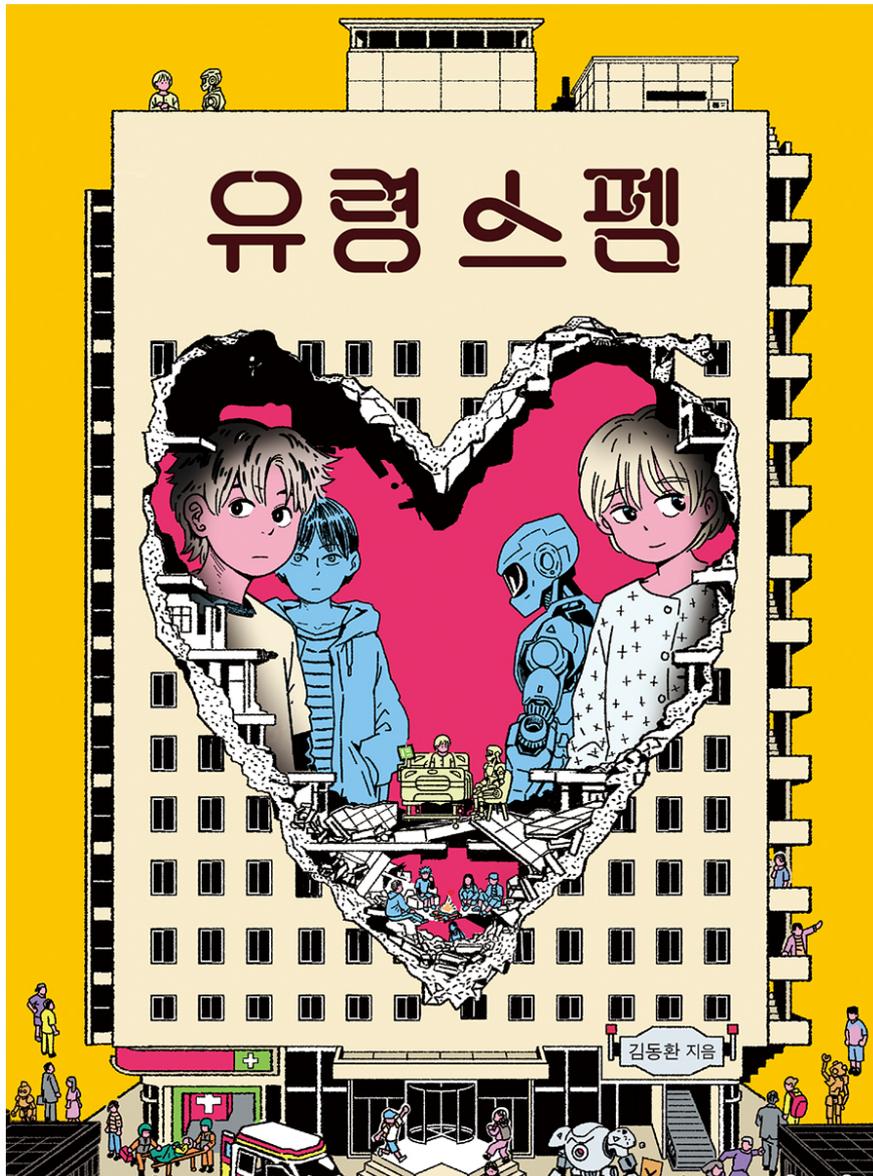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학생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령 스펀

김동환 지음



주제어_ 디스토피아, 인공지능, AI, 친구관계, SF, 마음, 죽음, 공존

우리교육

★ 독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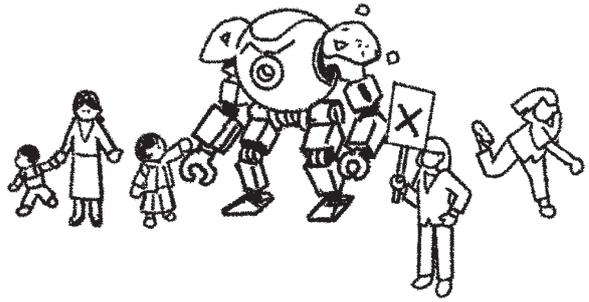
독서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팸'이란 단어의 뜻 알아보기 - 제목 '유령 스팸'이 의미하는 것 추측해 보기
독서 중 (책 속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일지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상적인 문구에 밑줄 치고, 메모하며 읽기 스팸은 정말 인간을 위협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팸이 대신하는 인간의 일 책 속에서 찾아보기 - 사람들은 왜 스팸에 대한 시위를 하는 것일까 - AI로봇과 인간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에 관해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사고는 일으켰지만 희생 정도가 약하면 그 책임도 줄어들까? 마음은 어떤 생각들로 만들어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가 죽거나 다쳤을 때 슬퍼하는 마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집'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욕구일까, 생존 본능일까?
독서 후 (토론과 논술, 독후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뒷이야기 상상해서 적어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보기 - 친구들과 이야기 공유하기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팸에 대한 성구의 생각 변화 알아보기 - 스팸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인물의 근거 알아보기 - 인공지능 로봇에게 마음이 있다면,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 관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읽기: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학: 인간과 다른 존재의 공존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책 소개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세상, 사람과 시가 공존할 방법은 없을까?

인공지능 로봇인 ‘스팸’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생활 편의성이 극대화된 근미래. 그러나 스팸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일으킨다. 대부분의 인간 노동이 스팸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하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도심부에 살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점차 주변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주변부의 빈 건물들이 잇따라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2045년 누가, 왜, 학교를 공격할까?

성구를 비롯한 주변부 아이들은 붕괴 사고가 가까운 학교까지 위협해 오자 그 배후를 두고 매일 토론을 벌인다. 아이들은 끝내 첫 희생자가 나온 붕괴 사고에 대해 더 이상 사고가 아닌 테러로 보아야 한다며 정보와 증거를 수집해 간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혁은 전철역 플랫폼에서 스팸이 알 수 없는 글귀 앞에 홀린 듯 무리 지어 있는 걸 목격한다. 걸모습으로는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유령 스팸’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소문,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 점점 좁혀오는 테러의 위협 속에 주변부 아이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2044년 암센터 투병 중인 유이와 스팸 ‘일삼’이 만나다

주인이 사망하면서 홀로 남겨진 스팸 일삼은 병원 한구석에 숨어 있다 유이를 만난다. 제조사로 수거될 운명을 피하고 싶었던 일삼을 유이는 기꺼이 자기 병실에 숨겨 주기로 한다. 갑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 일삼과 유이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 가지만, 일삼은 유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일삼은 유이가 들려준 노래 제목에서 무언가 떠올리고 네트워크로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유령 스팸》은 인공지능의 존재가 위협적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암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려본 과학소설이다.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독서 전

독서 준비: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아래의 예문은 이 소설의 주요 소재인 '스팸(Spem)'과 관련된 뜻을 알려 주는 책 속의 단락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봅시다.

'스팸 인 알리움'을 해석하면 '당신 안의 희망' 또는 '다른 세상에 대한 희망' 정도가 되는데, 수백 년 전 이탈리아 작곡가 알레산드로 스트리조의 40성부 합창곡에 대적하기 위해 영국 왕실의 기획으로 작곡가 텔리스가 만든 매우 화려한 곡이라는 것 정도였다. - 41쪽

“그저 '스팸 인 알리움'이란 말에서 유추해 본 거야. '스팸'은 라틴어로 희망이란 뜻이지. 너희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알리움'에는 타인이란 뜻이 있어. 이 둘을 연결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알리움이 너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절대 인간을 공격하라는 따위일 리가 없어.” - 168쪽

1. '스팸'은 위험하거나 단순한 노동을 인간 대신에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입니다. 개발자가 로봇의 이름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2. 책 제목은 《유령 스팸》입니다. '스팸'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나름대로 유추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독서 일지 작성하기

1.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인상적인 장면에 밑줄을 쳐 보고 인상 깊었던 이유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책을 읽어 봅시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시위대를 향해 쏟아져 들어왔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대로 시위대를 뚫고 지나갈 것 같았지. 그런 데 마지막 순간 차가 방향을 바꿨어. 그리고는 내 건너편 신호대를 들이받아 버렸어. 순식간에 거리는 아수라장이 됐어. 시위하던 수백 명의 사람이 사고 현장을 둘러싸고 모여들었지. 방금까지 거기 서 있던 아줌마가 없어진 걸 안 건 한참 후였어. 난 사람들을 비집고 아줌마를 봤어. 아줌마는 의식이 없었지만 아직 숨을 쉰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신고받고 달려온 구급차가 아줌마를 실어 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건 성구 엄마의 이야기였다.

‘우리 엄마의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던 거였구나.’

성구는 갑자기 차오른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개를 치켜 들었다. 정연이 계속 말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사고를 낸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어. 그때까지 아무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 곧 다른 구급차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거기서 내린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어. 신호대를 그렇게 세게 들이받았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지. 아마도 자율주행차는 마지막 순간 탑승자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 같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랐어. 그 사람은 곧 택시를 불러 타고 자리를 떠났어.”

성구는 몸이 떨렸다.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성구가 말했다.

“그러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지. 그놈은 단지 거기 타고 있었을 뿐이었으니까. 운전은 그놈이 한 게 아니니까.”

“그래, 나도 들었어. 다음 날 알게 됐지. 그게 너의 엄마였다는 걸.”

“법정은 결국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어!”

2. 책을 읽으면서 작성한 메모와 떠올린 생각들을 독서 일지에 정리해 봅시다.

독서 일지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유령 스펀	김동환	
책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책 속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			

독서 중

책 속으로: 스펜은 정말 인간을 위협할까?

1. 책 속에는 인간 대신 다양한 일을 하는 스펜이 등장합니다. 만약 내가 스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써 보세요. 사용하고 싶은 스펜 수는 제한 없습니다.

2. 주변부 사람들은 스펜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스펜을 고용하지 말라며 시위합니다. 스펜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스펜을 고용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나은지 생각을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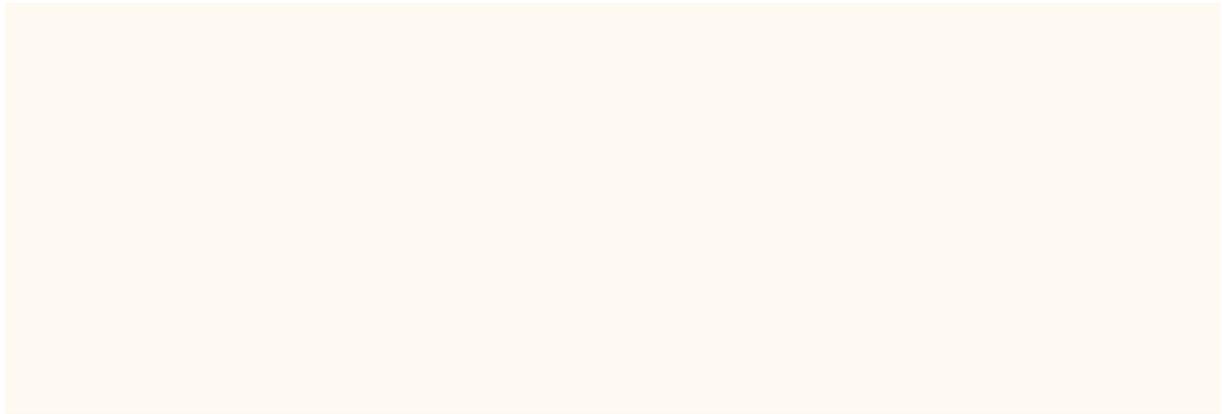
3. 인류 역사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사람의 생존할 수 없게 하는지, 또는 사람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지 근거를 대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독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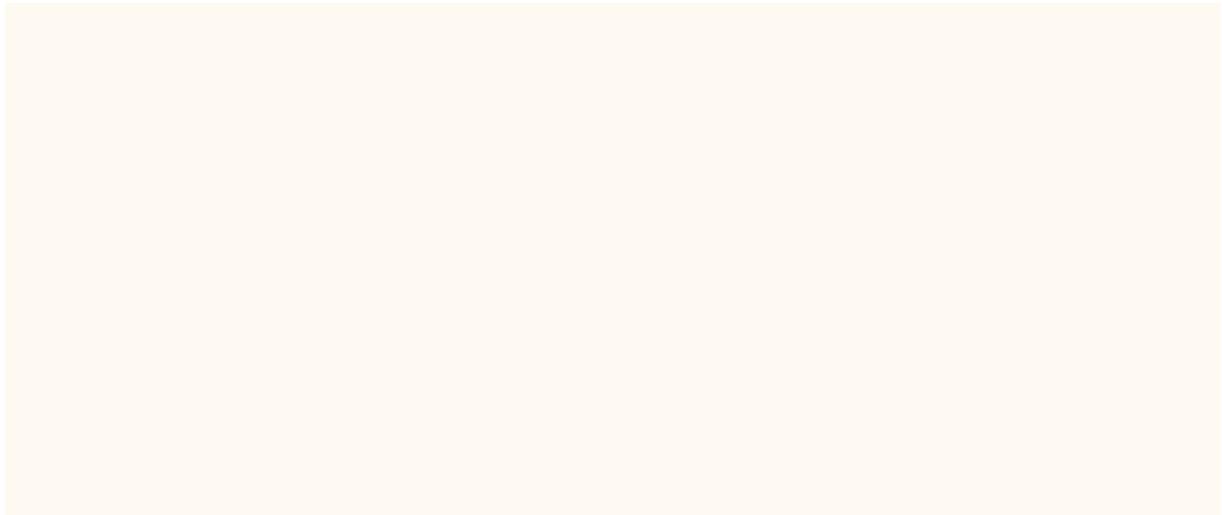
책 속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성구 어머니는 자율주행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고 현장에는 시위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차가 방향을 바꾸면서 시위하던 수많은 사람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은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운 경우와 사망했을 경우 받는 형벌이 다릅니다.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가에 따라 형벌을 달리 받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똑같이 받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사람을 마음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스웸 일삼은 유이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사람의 생각, 마음에 관해 공부합니다. 다음의 예문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봅시다.

1. 일삼과 유이가 누군가가 죽은 후 남은 사람들의 슬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슬픔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죽음이 슬픈 거라고 알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때 유이와 스웸이 마주한 사이로 분홍 꽃잎 몇 개가 떨어져 내렸다. 그걸 본 스웸은 하던 말을 멈추었다. 꽃잎에 반응하는 스웸이라니, 신기했다. 스웸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웸은 여전히 아이처럼 보였다. 바람이 불어 꽃잎 몇 개가 더 떨어졌다. 배롱나무꽃인 듯했다. 유이는 무릎 위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천진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말했다.

“인간도 말야, 잘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는 별로 슬픔을 못 느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겐 죽기 전에 지냈던 오랫동안의 삶이 있고, 그 사실에 공감한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 가까웠던 사람의 경우엔 더 할 테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건지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건지 모르겠단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웸은 땅에 떨어진 꽃잎 하나를 잡으려다 오히려 그걸 땅에다 짓이기고 말았다.

“슬픔은 누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내는 게 아니야. 그냥 생기는 거지.”

유이가 말했다. 그리고 유이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래, 네 말처럼 그건 남겨진 사람들의 몫일 거야. 자신을 생각하는 슬픔일지도 몰라.”

유이가 이렇게 고쳐 말하자 스웸은 손끝에 짓이겨진 꽃잎만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왜 말이 바뀌셨죠?”

“네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

2. '집'에 관해 대화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집이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유이의 엄마 아빠는 그녀가 입원한 후로 여러 번 이사했다. 이사 한 집 중엔 그녀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곳도 있었다. 지금 엄마 아빠는 어느 먼 섬마을에 있다고 했다. 섬마을 집을 엄마는 집 대신 숙소라 불렀다. 이사 다니는 동안 집은 매번 작아지고 작아져, 엄마 아빠 이제 집이라 부를 수도 없게 돼 버린 곳에 살고 있는 거였다.

유이가 쓰던 물건들은 버려진 지 오래였다. 엄마 아빠 생각을 하며 유이가 떠올리는 섬마을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곳이었다.

유이는 부모님이 섬으로 떠나기 전 어느 날 병원을 나와 집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집엔 유이가 쓰던 책상도 침대도, 책들도 잡동사니들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들은 좁은 방 안에 아무렇게나 놓인 주인 없는 물건들일 뿐이었다. 어느 하나 제자리에 있는 게 없었다. 주인이 없으니 제자리라는 개념도 사라진 거였다.

‘그런 곳을 집이라 할 수 있을까?’ 유이는 그날 도저히 집이라 생각되지 않는 낯선 방에서 끝도 없이 울다 잠이 들었다.

생각하면 집이란 건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었다. 엄마 아빠의 잦은 이사로 달라진 건 이사한 집과 물건들이 아니라 유이의 삶이었다.

“집이란 건 원래 없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일삼은 창가에 서 있다가 그녀의 침대로 와서 걸터앉았다.

“위로가 되는군요. 집이란 건 단순히 건물 같은 게 아니란 얘기죠?”

일삼은 빨랐다. 이걸 처리 속도라 할지, 공감 능력이라 할지 몰랐다. 인간의 공감 능력이란 것도 결국 수많은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결과물 같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일삼의 능력은 그리 놀라울 게 없을 터였다. 오히려 인간의 공감 능력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온 자신이 틀린 건지도 몰랐다. 또 인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타 고난 공감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유이는 이런 일삼이 좋 아졌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유이는 순간 일삼에게서 얼핏 인간의 얼굴을 보았다고 느꼈다. 일삼은 생각에 잠긴 유이를 보더니 말 했다.

“집은 잃었어도,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 거군요.”

3. 일삼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무모한 일에 사람들이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인류가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필요하다면 특정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봅시다.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는 원시인을 한번 떠올려 봐. 그에겐 위험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보다 굶어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거야.”

유이가 몸을 일으켜 앉아 말했다.

“그래서요?”

일삼은 즉각 반응했다.

“그럴 땐 위험을 손해라고 느끼지 않겠지?”

“순간적인 착각이겠죠. 굶어 죽을 확률보다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바보짓이죠.”

유이는 일삼이 미운 말만 골라 하는 꼬마로 보였다. 순순히 착해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꼬마였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뛰어드는 사람도 있겠지.”

“왠지 좋은 예 같습니다.”

일삼의 칭찬을 들으니 유이는 갑자기 이 모든 게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유이 자신에 대한 질문같이 느껴졌다. 일삼의 진짜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손해나 위험 따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앞에서 일시적으로 판단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했다.

4.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 관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생존만큼 절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욕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이 생존만큼 절실해지는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유이는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 본 적 없는 자신이 이런 얘길 한다는 게 가능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어릴 때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인간은 아이 때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안달하는 동물로 보여. 아이들은 혼자 남겨지는 걸 견디지 못하지. 아무도 자신을 돌봐 주지 않는 건 아이들에겐 위험을 뜻해. 사랑이 곧 생존인 시기인 거야.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로. 세상에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조차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생존하는 것 같기도 해. 사랑이 희망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걸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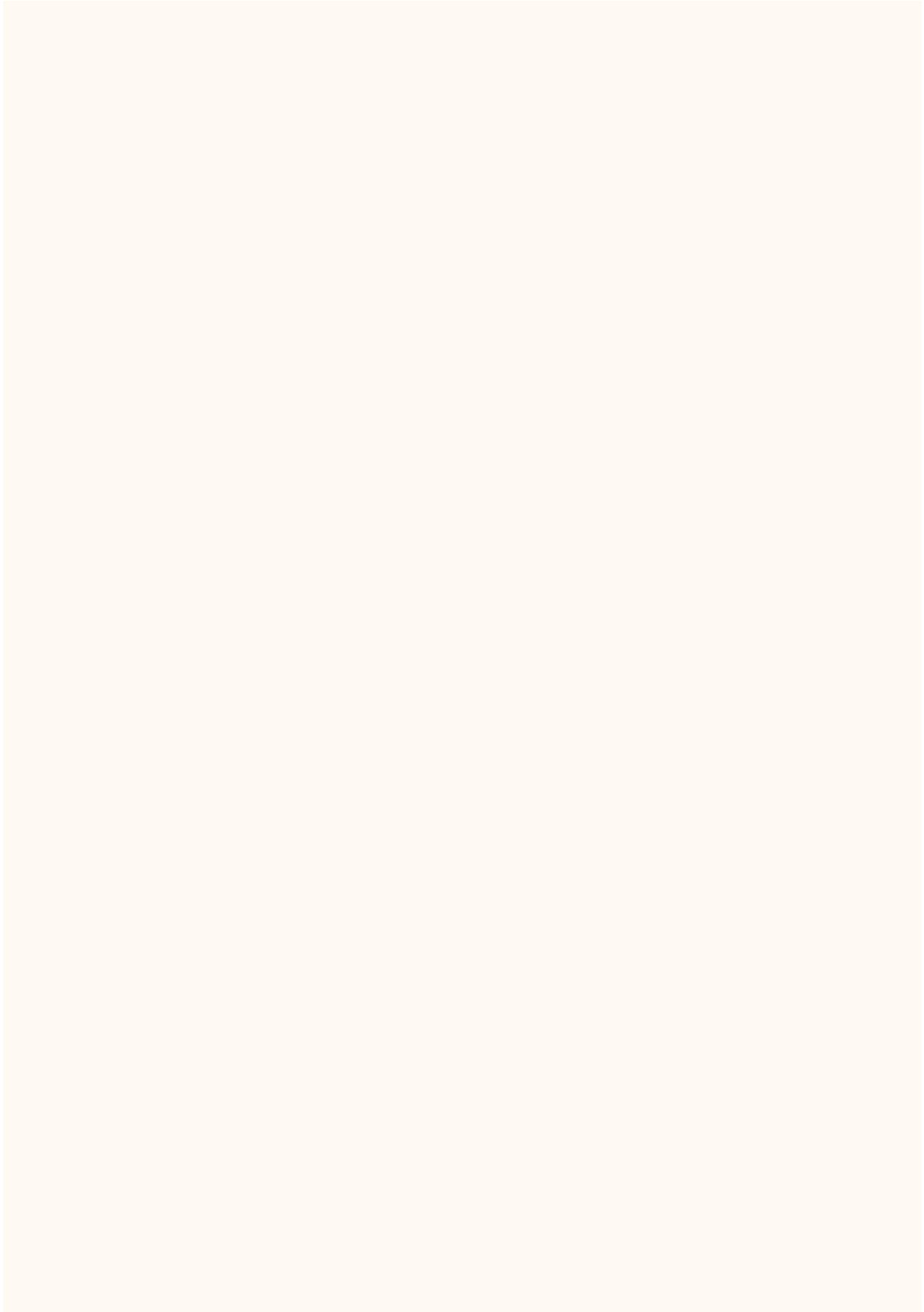
“흥미롭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전기 자극과 같은데, 그게 생존력에 도움 되도록 프로그램돼 있다는 게요.”

독서 후

뒷이야기 상상해서 적어 보기

1. 유령 스펀의 정체를 밝힌 후, 스펀의 리셋 버튼을 누른 후 성구와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적어 봅시다.

2.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 보며, 각자의 결말을 비교해 보고 가장 흥미로운 결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후

토론과 논술: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을까?

(가)는 성구가 스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고, (나)는 도서관 붕괴 사건을 겪으면서 바뀐 스편에 대한 성구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두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제시된 활동을 해 봅시다.

(가)

엄마는 1년 전 자율주행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성구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죽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던 그날의 사고.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그때부터 성구는 거리를 메운 자율주행 차들이나,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스편들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가 없었다. 심할 땐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공포는 어느 순간 모든 기계에 대한 공포증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침내 짐꾼 스편이 성구의 눈앞을 지나쳐 갔다. 인간보다 월등 한 힘을 가진 존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수시로 인도를 걸어 다닌다는 사실이 성구는 두려웠다. 놈들에게 아직 마음이란 게 없어 다행이지만, 따지자면 엄마를 해친 자율주행차에도 마음은 없었다. 언제까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까.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성구는 팔에 소름이 돋고 어깨가 떨렸다.

(나)

“너희가 그걸 원할 리 없다는 걸 알아. 오히려 우릴 죽이려 하는 건 인간이지. 알리움도 그걸 원하는 게 아냐. 그랬다면 알리움은 회사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려 했겠어?”

“알리움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성구의 입에서 알리움이란 말이 나오자 민아는 다시 멈칫했다. 유령 스편답게 실감 나는 반응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했다.

“직접 아는 건 아냐.”

성구는 거의 다 왔다고 느꼈다. 그는 신중하게 얘길 이어갔다.

“그저 ‘스웸 인 알리움’이란 말에서 유추해 본 거야. ‘스웸’은 라틴어로 희망이란 뜻이지. 너희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고. ‘알리움’에는 타인이란 뜻이 있어. 이 둘을 연결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알리움은 너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절대 인간을 공격하라는 따위일 리가 없어.”

1. 위의 내용과 책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표를 작성해 봅시다.

스팸에 대한 성구의 처음 생각	
스팸에 대한 성구의 바뀐 생각	
성구의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	

2. 스팸에 대한 성구의 태도가 바뀌기 전, 친구인 정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들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고, 정연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스팸에 대한 정연의 생각이 성구와 다르게 나타난 부분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3. 이 책은 스펀이 인간의 마음을 공부하는 부분과 스펀이 일으킨 붕괴 사고의 배후를 찾기 위해 주변부 아이들이 추리해 나가는 부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이와 대화하던 일삼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가지게 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지게 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존은 불가능할까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게/못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

그렇게
생각한 이유

